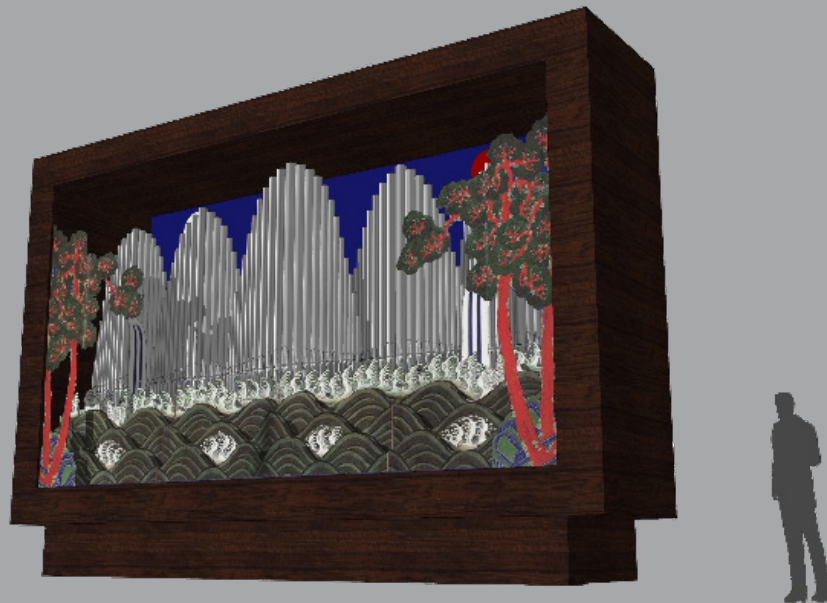


K-소리 전통문화산업화 방안 연구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활용을 중심으로-



헤리티지 연구소 기업 온고



목차

I. 서론

II. K-소리 전통문화산업화의 필요성

1. 소리·악기의 변용 발전
2. 전통과 현대의 융합
3.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사업의 전통문화산업화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5. 한국 사상, 예와 악의 실현

III. 파이프오르간의 역사문화성

1. 한국 소리문화의 원천
2. 생황의 등장과 전파
3. 고구려의 생황과 백제 금동 향로의 배소-한류의 연원
4. 당의 도자기에 나타나는 생황연주상
5. 통일신라 이후 생황의 계승
6. 파이프오르간의 독창성-제2의 한류시대

IV.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구축-인프라의 산업성

1. 풍부한 인프라자원
2. 한국화된 파이프오르간에 국악기소리를 구현하는 기술
3. 국악기소리를 구현하는 한국풍의 파이프오르간 제작
4.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예술구성
5. WEB 3.0 메타버스 구축 전통문화산업화
6. 전통문화발전과 문화관광경제 효과

V.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활용-콘텐츠의 창의성

1. 일월오봉도의 신성성
2. 세종대왕의 고유 음악 체계화
3. 파이프오르간, 대표 고급문화 10선에 선정
4. 일월오봉도의 상징성
5. 세계적 소리축제로의 부상

VI.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발전 방안

1. 파이프오르간 글로벌 축제
2. 체험프로그램과 관광명소화
3.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4. 파이프오르간 통합플랫폼 구축
5.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저작권 보호

VII. 결론

I. 서론

전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춤,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에 깊게 빠져 있다. 한류로 지칭되는 한국문화는 ‘비’와 ‘신화’, ‘싸이’, 그리고 ‘BTS’ 등 톱 가수들이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한국 신드롬을 창조하고 있다. 한류는 과연 어디에서 유래할까?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국문화의 원형질은 무엇일까? 파이프오르간의 원형인 전통 악기 생황의 변천과정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두 가지 화두이다. 한류는 일찍이 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국가시대에도 있었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밤새 내내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시선으로 불리는 이백은 오언절구로 이 정경을 찬미했다.

한류의 중심은 역시 가수의 노래와 춤, 곡이다. 고대인이 즐기던 가무는 하늘에 제사, 천제를 지내고 즐기는 율려이다. 천손민족으로 고대인은 하늘의 뜻, 질서를 좇아 낮에는 성을 쌓거나 생산활동을 하고, 밤에는 마을공동체별로 가무를 즐겼다.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라는 축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벌인 천제이다.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자 율려이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 오늘 우리가 즐기는 한류 또한 신성성을 가지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대국가 시절에는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교육문화수준을 가져 고구려예술단이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고구려악을 펼칠 수 있었다. 중국 귀족들도 고구려악, 고구려풍, 즉 고대한류를 즐겼으며, 이는 그 이후로도 600여년 동안 지속됐다.

고대한류는 가수와 무희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고 공연장을 주도하는 악단에 의해서도 크게 형성됐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악단의 악기는 『수서』에 14종, 『통전』에 17종, 『신당서』에 20종에 이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생황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황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 음악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에 알맞은 화음의 음색을 가지기 때문이다. 생황의 음색은 또한 그를 창조적으로 변용한 파이프오르간 소리와 같다. 홍성훈 오르겔바우마이스터(독일 공인 장인)은 생황은 파이프오르간의 원형이며, 파이프오르간의 소리는 부드럽고 낮으며 허스키해서 우리 소리와 같다고 한다. 그래서 생황도 그렇지만 파이프오르간은 종교 제례의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류의 연원과 원형질을 이해하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술선하고자 한다. 생황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 음악의 창조적 변용을 이해하며, 세종대왕의 음악사적인 르네상스를 목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황이 우리의 고대국가를 거쳐 중국과 서역에서 활용된 흔적을 찾아가며 세계와 문화교류를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는 일방적 전파와 강요가 아니라 쌍방의 교류와 향수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다. 생황은 유럽에서 파이프오르간으로 재탄생하며 음악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파이프오르간의 역사성, 집단성, 보편성, 특수성 등을 살릴 시점에 오게 됐다.

마침 2024년 9월 15일부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생황과 파이프오르간을 연구하며, 이를 전통문화산업으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의 뜻을 충분히 살려내는 게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며, 전통문화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가교역을 모색해본다. 일월오봉도는 조선의 개국정신이 담긴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기대를 모은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파이프오르간 작곡을 하거나 용비어천가, 여민락 등을 연주하며,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는 인적 인프라와 기술수준, 연주자들을 갖춘 상태여서 전통문화산업으로 진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가장 기본인 파이프오르간 제작은 독일 최고의 오르겔바우마이스터인 홍성훈씨가 주요 무형문화재들과 협업체제를 갖추며 담당할 수 있다. 파이프오르간 연주는 이미 3,000여명에 이르는 연주자들이 양성돼 있다. 여기에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통합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5대양 6대주에서 동시에 K-pop을 연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전통문화산업 차원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시야를 넓히며, 축제장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도전이다. 전주에 가면 세계의 소리,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모토이다. 일월오봉도를 통해 유불선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현묘지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통해 만물이 생명력을 기르는 집화군생의 풍류도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같은 취지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류의 연원으로서 파이프오르간의 역사성·문화성을 살피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파이프오르간의 원형인 생황의 발전과 변용, 고대한류의 흐름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파이프오르간 제작을 위한 여건을 진단하고 제작과정을 설계도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콘텐츠를 개발해서 산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는 일월오봉도를 문화콘텐츠로 변용하는 창조적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일월오봉도의 성격과 상징성, 세종대왕의 음악 르네상스 구가,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평가, 세계적 소리축제로의 부상 가능성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는 정태적이거나 과거 회귀적인 게 아니라 동태적이며 미래 창조적인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글로벌 축제 창설,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적 관광명소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퀀텀점프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공자는 예악을 통해 공동체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다. 우리는 첨단방법론을 연구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I. K-소리 전통문화산업화의 필요성

1. 소리·악기의 변용 발전

축제는 그 시대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이다. 문화축제 공동체로서 축제를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경제를 일으키며,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리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공연예술을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연극/뮤지컬이며, 선호비중은 30.4%이다.¹⁾ 전통음악, 클래식/오페라, 대중음악(콘서트)은 각각 21%의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리축제의 한 축인 월드뮤직 선호도는 2022년에 이어 3%대에 머물고, 어린이/가족 장르는 2022년 9.8%에서 2.8%로 크게 떨어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소리축제는 이 같은 수요를 받아들여 판소리, 서양음악 중심에서 K-pop을 조금 더 수용하는 정책을 택해야 할 것이다. 세계소리시장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장르 가운데 하나인 K-culture의 대표 K-pop을 눈앞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소리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국민, 세계 관객과 더불어 즐기는 세계소리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승전결(起承轉結) 구조로 하되, 기: K-pop, 승: 판소리, 전: 융합, 결: 새로운 소리의 지평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흥겨운, 한국 소리와 글로벌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소리문화의 국제교류에 이바지해야 한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과 같이 새로운 악기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소리의 지평을 새롭게 넓히며 지방정부가 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인간의 영성을 도야하며 최고의 경지인 신성에 다가가보려는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소리는 우리 민족이 고대국가 시대부터 하늘에 지내던 제례음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통소리문화를 계승하며 K-pop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으로 현대음악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하며, 전통소리문화를 계승하는 등의 여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소리축제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명창 또는 소리꾼 등 가객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연주되는 악기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세계소리축제의 취지는 판소리 등 전통소리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소리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류가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소리문화의 발전은 가객의 소리공연의 발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리공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악기의 변용 발전에 좌우된다. 세계소리축제는 이러한 점에서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주된 국악기인 생황을 원천으로 하는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세계소리축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1) 이춘구,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산의 계획 및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라북도의회, 『전북도민이 본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및 방안』 자료집, 2023. 12.

우리 국악기는 생황처럼 고정된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연주자의 창의성에 맞춰 변용 발전하는 중이다. 인류 문명의 역사 발전을 볼 때 우리 국악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부터 활용되다가 하대로 내려오면서 연주자와 연주되는 지역에 따라 변용 발전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형 파이프오르간은 생황의 변용 발전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원형을 잘 이해하며 변용 발전된 성과물로서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중심 악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세계와의 소리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새로운 모델로 구축할 수 있다.

2. 전통과 현대의 융합

예를 들면, 세계소리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전통은 생황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부터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생황 등 악기가 사용되는 관행을 말한다. 현대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지금의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은 현대 더 나아가 미래를 주재할 수 있다. 세계소리축제의 취지도 전통과 현대를 소리예술 장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 파이프오르간은 이 같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국악기이다. 대형 파이프오르간의 원천인 생황은 민족의 이동이나 대형상단의 이동에 맞춰 이동경로를 드러내고 있다. 대형 파이프오르간은 생황의 현대적 대체자이자 중심악기로 등장하고 있다.

연주곡 또한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소리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질적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소리축제는 문명사 발전적 측면에서는 교류와 창조의 가능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소리만 최고로 알고 우리만 즐기면 세계소리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방적인 우리 소리만 공연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 측면이 중심을 차지한다.

상호방문과 협동공연이 세계소리축제의 핵심 키워드이다. 이를 통해서 세계소리도 발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생황에서 대형 파이프오르간으로의 진화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생황의 원천에서 서(西)로 서로 이동해가듯이 대형 파이프오르간 할 수 있다. 세계소리축제는 이 같은 문화교류의 양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세계소리축제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전 세계의 음악적 유산과의 폭넓은 소통을 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이 세계 속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할 당위성이 강조되는 바이다.

3.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사업의 전통문화산업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를 전통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프오르간 시장을 조사한 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체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과 공연시설, 기업체의 사내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경영, 그리고 종교시설 분야 등에서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이프오르간 시장은 수입으로 인한 높은 가격(5억 원~30억 원)과 대형화로 인한 설치 장소의 제한 등으로 중소형 음악당, 중소형 종교시설, 다목적 강당, 홀, 갤러리, 지자체 문예회관, 대학 등에서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틈새시장을 노려 표준화와 반값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틈새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오르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시장은 400억원, 세계시장은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이를 전통문화산업으로 확산시켜 진흥하는 게 바람직한 사이클이다.

* 국내·외 시장규모(단위: 백만 원)

구 분(억원)	현재의 시장규모(2021년)	예상 시장규모(2022년)
세계 시장규모 *	2,500,000	3,000,000
국내 시장규모 **	40,000	40,000
산출 근거	International Society of Organbuilders (ISO) : https://www.international-organbuilders.com/	

* 오민진·조현정·김혜림·신기루·주예혼·박현주, 『대한민국 파이프 오르간』, 오르간, 2021.

사업화는 전체 과정이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의 결정판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전문적인 계산과 설계는 별도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비용 vs 편익 즉 CB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비용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인프라 구축비, 원재료비, 기획관리운영비 등을 계상해야 할 것이다. 편익에는 생산가격 또는 관객 입장료, 이윤 등을 계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관광경제효과, 지역경제 효과, 행정편익 등도 분석해야 한다. 사업과정을 Flow관점에서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전문가 등을 투입함으로써 전통문화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과정별 인력	업무분야
인프라 제작	마이스터, 전문인력, 무형문화재, 보조인력
콘텐츠 활용	일월오봉도 창곡, 편곡, 연주, 무대장치, 조명, 음향, 영상, 음원관리
메타버스 구축	서버연결, 플랫폼 구축, LAN연결
기획관리	기획, 행정관리, 평가

앞 단계를 거치면 개별 프로젝트에서 전통문화산업화로의 승화가능성을 도표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사업 성공->성공 노하우 전수 확산으로 산업화 촉진->수입대체 추진->수출시장 개척->ODA 진출 타진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과 같은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3년 9월 14일에 제정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제1조(목적) 조항에서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전통문화산업 발전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연주와 설치 등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규정한 대로 “전통문화” 중 전통음악으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전통문화” 중 전통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이프오르간의 원형인 생황을 비롯한 삼국시대 고대악기가 이 일찍이 중국에서 고대한류를 일으킨 데서 비롯된다.

또한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이나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에서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국 사상, 예와 악의 실현

조선의 정신은 예와 악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운율을 시간의 질서로 바꿔낸 것이 역법이다. 동양에서는 하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바람을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유형의 존재로 치환했다. 바람을 소리로 바꾼 다음 소리를 질서 있게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바람의 질서가 바로 율이다. 율이 기에 담긴 것이 음악이고, 도량형이다. 공자가 악을 중시한 이유는 바람이 율을 짓고, 율이 악과 예를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은 역법과 음률, 예악 등 동양 문화 전반의 바탕이 되는 핵심 코드였다. 동시에 음악은 조선, 유교사회의 토대인 예악 사상의 실천과 사회 원리를 이해하는 구간이 된다.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의 작동이 순조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음악 역시 원융의 작용으로 주악비천도 단청 문양에는 조선 유교사회의 예악 사상이 흐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이다. 예와 악의 구현을 통해 나라의 이념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의례에는 백성을 향한 나눔 정신이 담겨 있다. 세계소리축제는 공자의 말대로 예악을 통해 통치하는 첩경을 보여준다. 더욱이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에 세운다면, 대형 파이프오르간이 펼치는 선율에 매료될 것이 분명하다.

음악을 통해 천상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은 일찌감치 천손민족으로서 예악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음악인들을 중국과 일본에 파견하여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활동을 하였다. 동아시아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의 악기인 생황은 한국 관악기 중에서 유일한 화음악기로 음색이 화음 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워 단소와 함께 이중주로 널리 사용된다. 생황은 본디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 길고 짧은 여러 개의 대나무 관을 꽂아서 만들었으며 음빛이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 세조 4년의 기록에는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하고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은 방울 방울 맺힌 이슬과도 같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생황을 천상의 소리로 비유했다. 조선은 예악을 중시했고 세종은 ‘여민락’, ‘수제천’을 작사 작곡하여 백성과 나누었다.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형 파이프오르간의 신성한 연주가 울려 퍼진다면 예악은 절로 지켜지고 선양될 것이다. 세계소리축제에 맞춰 대형 파이프오르간이 연주되면 하늘나라가 다시 한 번 열릴 것이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Homo Deus, 즉 신인(神人)이 나타나 신의 뜻을 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소리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도달점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통해 하늘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면 천상의 선녀들이 내려와 세계소리축제를 진정으로 축하할 것이다. 또한 생황은 중국의 공자가 연주했던 악기로도 알려져 있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세계소리축제에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소리의 고장, 전주의 자산을 창조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두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일이다. 더욱이 이를

산업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역사관광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로써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전 세계인이 교양 있는 문화시민으로서 전주시민을 부러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III. 파이프오르간의 역사문화성

1. 한국 소리문화의 원천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출토된 돌피리

복천동 고분에서 출토된 돌피리는 동래구 마안산 자락의 구릉에 걸쳐 조성된 가야 지배층의 고분군이다. 부산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우측 사진)

울산 반구대 암각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좌측 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인 반구대암각화에는 약 300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고래 사냥 그림은 약 7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작품으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류 최초의 풍경유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고래와 동물상, 도구에 주목할 때 일부는 인물상에 더 집중한다. 인물은 남자이고 무당이나 포수, 영매(靈媒)로 추정한다. 악기는 돌피리나 덩각, 켈프-혼으로 보인다.²⁾ 우리가 돌피리를 잊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이미 약 5,000년 전 조몽시대 유적에서 발굴한 가장 오래된 돌피리를 보유하며 신과의 대화, 사람과 신을 연결하는 신성한 악기로 숭상해 오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Stone Flute, Stone Whistle이라는 피리가 있고, 아즈텍인들은 흙으로 만든 clay whistle을 자랑한다. 모두 오카리나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돌피리는 김해에서 발굴한 5세기 가야시대의 것으로 현재 부산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금 더 역사가 내려오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의 오월제(五月祭)와 시월제(十月祭) 등 우리 겨레의 제천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제천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천손민족으로서 자부심이 계승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 7세기 중엽 당나라 두사선(杜嗣先)이 펴낸 『토원책부(兎園策府)』에 고조선의 풍속으로 10월에 제천행사인 무천이 열렸고, 출정에 앞서 소를 잡아 발굽의 형상으로 길흉을 점치던 우제점(牛蹄占)이 있었다는

2) 김잠출, 반구대의 피리부는 사나이, 「소소한 울산史 에세이」 2024.02.04.

부여와 고구려의 경우 제천행사를 국중대회(國中大會) 즉 나라 가운데 큰 모임으로 여는데,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풀어주어 화합을 도모한다. 이때에 모두들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참가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고구려 동맹 행사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임금이 직접 참가해 행사를 주관했다.³⁾

우리나라의 천신숭배는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락 등 상고대(上古代) 왕국의 창건주인 시조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적인 존재로 관념됨으로써 구체화된다.⁴⁾

이들 시조왕은 모두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자 지상왕국의 왕으로서 섬겨진 존재들이다. 부여의 영고와 고구려의 동맹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였다. 백제 고이왕(古爾王) 5년(238) 정월에 북과 피리를 사용해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과 신라 혁거세(赫居世) 임금이 태백산 아래 천부소도를 건설하고 태백산 가운데 봉우리에 있던 허물어진 천제단을 수축하여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부도지(符都誌)』의 기록이 있다.

『부도지』에 따르면 천신신앙의 유래는 이미 부여·고조선 및 삼한 당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신라의 영성제(靈星祭)·일월제(日月祭)·오성제(五星祭) 및 고구려의 영성제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상고시대 사회의 천신 신앙은 보다 더 다양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제를 올리는 제단은 대개 산정(山頂)이나 산기슭에 위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다. 즉, 돌을 둥글게 모아 경계만 짓고 한 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천제는 매년 정월에 제를 올리는 세시의례와 수년 주기 혹은 특정한 시기에 날을 받아 제를 올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삼국사기』 고이왕 기록에서 보듯이 천제를 올릴 경우 악기를 썼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생황의 신성성을 고려할 때 천제를 지내던 어느 시점에는 생황도 신의 악기로 활용됐을 것이다.

2. 생황의 등장과 전파(파이프오르간의 조상)

팬파이프(영어: panpipe) 또는 팬플루트(영어: panflute)는 그리스어로 시링가(그리스어: Σὺρρυγα)라고 하는 관악기로,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해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⁵⁾ 고대 그리스어로는 시링크스(고대 그리스어: σὺρρυξ)라고도 한다. 길이, 즉 음높이가 다른 여러 대의 피리인 플루트를 보통 평평하게 늘어놓은 것으로 파이프오르간의 가장 오랜 조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의 반수신(半獸神) 판이 연주한 데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극 《마술피리》(1791)에서 파파게노가 갖기 때문에 파파게노의 피리라고도 불린다.

오르간의 전신은 그리스어로 시링크스라고 하는 판의 피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 관악기에 바람통, 다시 기계적인 송풍장치가 붙어 파이프오르간이 생겼는데, 파이프오르간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기원전 200년쯤 된 것으로 이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

3) 네이버 지식백과, 「제천행사와 놀이문화의 변화-집단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활력소가 되던 전통사회의 축제」, 『한국의 생활사』, 김용만.

4) 국립민속박물관, 천제의 유래. 5) 위키백과, 팬파이프.

사람 크테시비오스(Ktesibios)가 휴드라울루스(Hydraulus)라고 하는 수압(水壓) 오르간을 발명하였다.



해인사 명부전의생황도



그리스 신화의 목신인 Pan

이 악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온 풍압 오르간(뉴머틱 오르간)과 달리 풀무로 일으킨 바람의 압력을 조정하는 데 물통의 수압을 이용하는 것이다. 휴드라울루스에 관한 기록은 일시 중단했다가 13세기에도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 그 후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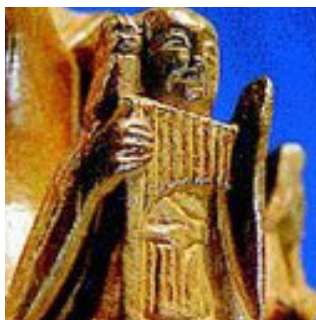
루마니아의 나이(루마니아어: Nai), 안데스 지방의 시쿠, 중국의 파이샤오(중국어: 排簫), 대한민국의 소(백제금동 대향로에 이와 비슷한 악기가 새겨 있음), 라오스 및 태국 북동부의 윗(태국어: โหวด), 조지아의 라르체미(조지아어: ლარჭემი) 등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입으로 부는 반대쪽의 관들의 끝 지점들은 밑을 2로 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룬다.

3. 고구려의 생황과 백제 금동 향로의 배소-한류의 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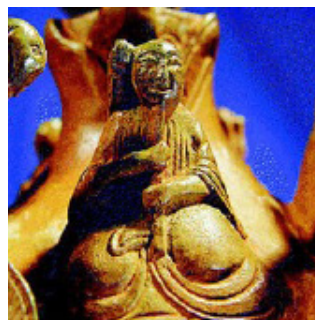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악기들 가운데 순수한 고유 악기는 뜻밖에도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장고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해금은 몽고 지방의 해족 악기로서 고려 시대에 들어온 것이다. 옛날 서역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많은 악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륵이나 왕산악 같은 선인들에 의해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악기로 재탄생되면서 우리의 문화를 질적, 양적으로 팽창시킨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는 전통적인 음악에 중국과 서역의 악을 받아들여 우리의 예술 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고구려에서는 3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 사이 고분의 벽화에 산악·백희에 해당하는 연희를 많이 그렸다. 4세기 중엽의 무덤인 안악 3호 고분의 행렬도에는 관악기로 긴저(장적)·뿔나팔·작은 뿔나팔·배소, 현악기로 완함·현금, 타악기로 세운 북·말북·메는 북·메는 종·요·흔들 북·손북·소 등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고대 우리 민족의 악기 ‘생황’⁶⁾은 피리의 군락으로 만들어진 악기로 대표적인 화음악기다. 6-7세기에 제작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에는 생황과 닮은 소가 등장한다. 봉황 바로 아래 즉 뚜껑의 제일 위쪽 에는 5명의 악사가 각각 금, 완함, 동고, 종적, 소 등의 5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연주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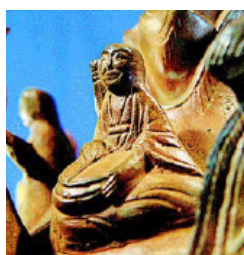
백제 금동 향로 소
(고구려 생황과 백제 금동 향로 소는 같은 피리 군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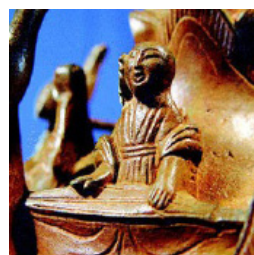
백제 금동 향로 피리



백제 금동 향로 완함



백제 금동 향로 북



백제 금동 향로 거문고

1965년 옛 소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사마르칸트시 북부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압 궁전터 제1호실 서벽에서 사절도가 그려진 궁중벽화가 발견됐다. 이 벽화는 사마르칸트 왕인 와르흐만왕 시기인 7세기 중엽의 궁중 행사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이 궁중행사가 서부 토카리안 지역의 차간니아(Chagania), 서역의 고창(高昌) 혹은 중국·인도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들이 고대 한반도(고구려)의 사절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이 벽화는 당시 한반도와 서역 간의 공식적인 국교 관계뿐 아니라 한국인이 서역까지 왕래했다는 한국의 서역교류사(西域交流史)를 증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해준다. 당나라에 황제즉위식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 각국 사절단이 참석하는데 새의 깃털이 있는 조우관(鳥羽冠)을 쓴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사신이다.

1913년 평안남도 남포시 쌍영총의 널길에 그려진 벽화의 일부이다. 벽화 속 인물은 ‘절풍’이라 부르는 고깔에 새 깃을 꽂아 꾸민 ‘조우관’을 쓰고 있다.

6) 최정동, 「동이족 악기가 건너갔다·파이프오르간의 시작은 한국」, 중앙일보, 2019. 6. 15. 대진대 서병국 교수.



사마르칸트시 북부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아 궁전터 서벽의 벽화(7세기 중엽 궁중 행사)



조우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벽화 조각

고구려 5세기 평남 남포 쌍영총 벽화를 일제가 뜯어 와 반출을 시도하였다. 그중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관에 전시되어 있다.

고구려인의 옷치장과 말갯춤 등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달리 5세기 『위서』에서 7세기 『당서』까지 중국 사서에 지속적으로 조우관 착용이 기록돼 있다. 조우관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고구려의 큰 특징으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음악과 춤은 수나라 궁정의 공식 악장 ‘7부기(七部伎)’와 ‘9부기(九部伎)’에 들었다.

고구려 음악은 5세기 후반 중국 위 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노래와 춤, 악기는 중국에 전파돼 500여 년 동안 고려악, 고려기, 고려무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 ‘한류의 연원’으로 확실하게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⁷⁾ 고구려가 중국과 필적할 만한 문화를 향수했기에 고구려풍의 한류가 중국인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 고구려 악대를 구성하는 악기를 보면 『수서』에 14종, 『통전』에 17종, 『신당서』에 20종이다. 고구려에서 노래를 연주하는데 사용한 악기는 대부분 중국 또는 서역의 그것과 같다.

* 『수서』에 수록된 고구려 악기 14종, 악공(工) 18명

탄쟁(彈箏), 와공후(臥箏篴), 수공후(豎箏篴), 비파(琵琶), 오현(五絃), 적(笛), 생(笙), 소(簫), 소필률(小箏), 도피필률(桃皮箏), 요고(腰鼓), 제고(齊鼓), 담고(擔鼓), 패(貝)

* 『통전』에 수록된 고구려 악기 17종

탄쟁, 추쟁, 와공후, 수공후, 비파, 오현, 의취적, 생, 횡적, 소, 소필률, 대필률, 도피필률, 요소, 제고, 담고, 패

생황은 공통적으로 포함. 추쟁, 대필률이 추가로 포함되고 적은 의취적, 횡적을 나뉜.

7) 서병국, 「고구려인의 공동체의식 연구」, 역사실학회, 『실학사상연구 제25집』, 2004. 6. 32-43쪽.

『구당서』 권29 음악지2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 음악이 남조인 송나라(420-478)에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사가 있다. 이보다 늦은 6세기 말에 고구려는 북주(北周)가 북제(北齊)를 멸망시킨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구려 음악을 북주에 선사한 바가 있다. 북주의 시인 왕포(王褒)는 ‘고구려곡(高句麗曲)’이라는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기울인 잔에서 술이 줄줄 흐르고 늘어뜨린 팔소매 하느적거리는구나!(傾杯覆碗「垂手奮袖婆娑)”

고구려음악에 이어 고구려춤도 중국에서 널리 퍼져 사랑을 받았다. 『구당서』와 『통전』은 고구려 춤꾼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춤꾼 네 사람은 뒤로 상추를 틀었으며, 이마를 다홍색으로 바르고 금귀고리를 했다. 소매가 아주 길어 춤을 출 때 너울너울 날렸다.”고 한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고구려춤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깃털 모양 금장식 절풍모를 쓰고, 하얀 신 신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재빨리 넓은 소매 저으며 뿔뿔 춤을 추니, 마치 요동에서 날아온 매처럼 나래를 펼 치는 듯.” 고구려의 노래와 춤은 화려하다. 춤동작은 경쾌하고 강렬해 예술성이 매우 풍부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백은 701년에 태어났으니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고려풍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춤은 오늘날 BTS춤처럼 역동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7세기 중엽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악은 모국과의 문화 교류가 끊어지고 당나라 왕실도 혼돈기를 맞아서 이들 음악은 급격하게 쇠락한다. 고(구)려악은 한 곡만을 익힐 정도이고 의복이 낡고 없어져서 원래 풍습을 상실했다. 이렇게 당의 『통전』을 인용해 『삼국사기』 악지에 기록된 고구려악은 실제로는 7~8세기 당나라 궁중에 전승되던 고(구)려악이지 실제로 고구려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아닐 것이다. 김부식은 당시 존재했던 우리 사서를 인용하여 고구려 음악을 기록하지 않고 중국 사서를 인용했다. 고구려악의 악기로 기록된 탄쟁, 국쟁, 수공후, 와공후, 의취적, 횡적, 소필률, 대필률, 도피필률 등은 고(구)려악에 연주되던 악기이다.

고구려악을 이어받은 발해악은 계속 이어져 남송 효종 순희 12년(1186)까지 발해악을 연주했다. 발해 멸망 후 120년 간 존속한 금나라는 고구려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켰다. 징기스칸에게 나라가 망하는 1234년까지 전통을 이어왔다. 그 이후 원나라에서는 음악과 춤뿐 아니라 또 다른 고대 한류인 고려양()이 널리 퍼져 조선과 명나라 초기까지 지속된다. 고구려, 백제의 음악이 일본과 중국에서 연주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의 흔적이다. 고구려를 필두로 한 소리음악의 전파와 교류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면면이 오늘날의 한류 바탕이 아닐까 생각한다.

4. 당의 도자기에 나타난 생황 연주상

유물을 통해 고구려와 중국의 예술교류를 살펴보면,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는 주변 국가들을 초청해 국제음악제를 개최하며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중국 산시성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채기타재악용(三彩騎駝載樂俑)이 이를 설명하는 것 같다.



삼채기타재악용을 클로즈업한 모습

생황의 모습이 보이는 귀족들의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당삼채. 백색, 녹색, 갈색의 유약을 통해 구워진 도자기이다.

삼채기타재악용은 녹색·남색·갈색의 세 가지 색을 넣은 당삼채 일종으로 낙타를 타고 생황, 월금, 적을 연주하는 사람을 형상화했다. 1959년 서안시 서교중보촌(西郊中堡村)에서 출토된 당삼채는 목을 길게 뽑고 우는 낙타등 위의 선반에 오색찬란한 양탄자를 깔고 연주하는 모습이 역동적이다. 이 유물 등을 통해 고구려 악공이 생황 등을 연주하는 장면을 짐작할 수 있다.

당삼채는 중국과 서양을 이었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장안과 낙양 귀족들의 장례용으로 제작되어 묘릉에 부장되었다. 귀족의 취미와 생활 양상을 잘 나타내며, 서아시아풍 의장과 복식도 가끔 보이고 있다. 이 도자기는 신라, 일본, 인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탈리아 등 해외까지 수출되는 실크로드의 도자기이다.

거문고와 완함, 생황이 무용 반주에 사용되었고, 거문고는 진나라에 들어온 7현금을 왕산악기 개조한 악기로, 지금까지 연주되는 현악기 중 가장 오래되었고, 생황은 중국에서 생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쇼로서 모습이 보인다.

5. 통일신라 이후 생황의 계승

‘생황’이 우리 역사에 모습을 남긴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에서 출토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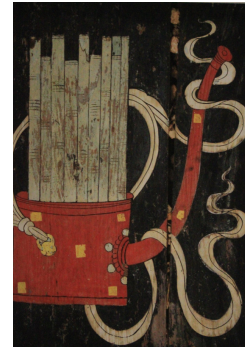
비석 모양으로 조성한 불상에 ‘생황’ 등의 주악상이 새겨져 있다. 연대가 가장 오래된 주악 석상으로 추정되며 국보 제106호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 비상은 백제가 멸망한 후 신라 문무왕 대인 673년 백제 유민의 유력자인 전 씨가 발원해 이룩한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성덕왕 24년(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에 새겨져 있는, 선녀가 하늘을 날며 생황을 연주하는 비천무녀 상으로 볼 때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생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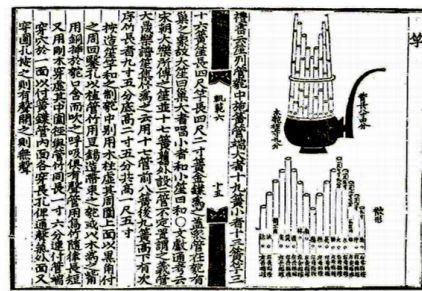
서기 673년 국보 106호 생황과 비파
계유가 새겨진 아미타불상
국립청주박물관



해인사 명부전 생황도



전북 부안 내소사 생황도
세종의 「악학궤범」 표현



악학궤범 생황

『고려사』에도 고려 예종 9년(1114년)과 예종 11년(1116년)에 북송에서 연향악과 제례악 연주에 쓰기 위해 생황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국보 제10호 백장암 삼층석탑에서, 내소사 대웅전 천정의 악기 벽화에서도 생황을 발견할 수 있다. 해인사 명부전 주악비천상은 1873년에 다시 지어졌다. 고구려의 전통이 1200년을 넘어 해인사 승려 장인의 손끝에서 재현되었다. 각각 생(笙), 비파(琵琶), 소(簫), 적(笛), 금(琴) 등 악기의 모습이 보인다. 신라, 고려, 조선의 세종에 이르러 우리 소리(훈민정음)와 우리 악기(내소사 악기 벽화) 및 해인사의 악기 단청 벽화 등을 통해 고구려 벽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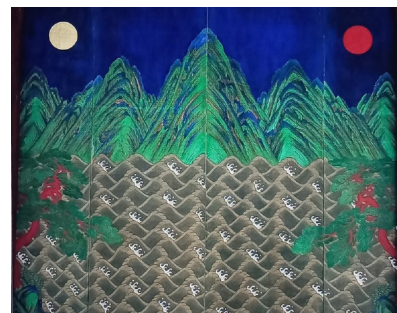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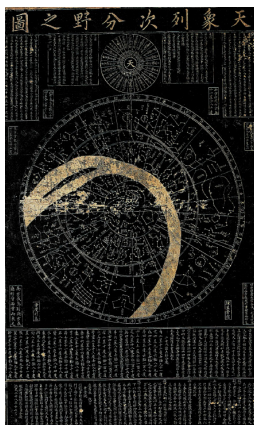
생황은 요즈음도 ‘천상의 악기’라고 표현한다. 옛날에는 공명통을 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부⁸⁾에 속하는 악기다.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하기 위한 악기다.

8) 네이버 지식백과: 포부는 팔음의 하나로 생황, 우, 화 따위의 바가지로 만든 악기를 통틀어 이른다.

6. 파이프오르간의 독창성-제2의 한류시대

아시아 민속 음악의 원류인 생황의 대중화를 위한 파이프오르간 제작 기법을 활용하고 연구 개발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파이프오르간은 오르간의 하나로서, 여러 길이의 관을 음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바람을 보내어 소를 내는 건반 악기이다. 근대의 파이프오르간은 우선 악기 자체의 크기에서 다른 모든 악기와 그 규모를 아주 달리한다. 구조로서 악기의 가장 바깥쪽의 부분은 악기가 설치돼 있는 건축물,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음향으로 차 있는 광대한 홀 그 자체이다. 청중은 악기의 내부에 위치해 그 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음향학적으로 이 악기의 설계 구축은 건축물 그 자체와 불가분하며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홍성훈 마이스터는 선조들이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대나무를 묶어서 부는 악기를 사용했으며, 이것이 중국에서 생황으로 발전하고, 비단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 그리스 과학자 크테시비오스가 발명한 수력(水力) 오르간 등의 영향을 받아 파이프오르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르간이 유럽의 종교, 문화와 더불어 발전해 300년 전에 봄을 이루고 다시 아시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느껴질 뿐 원래 우리의 악기라고 말했다. 오르간은 알고 보면 피리를 다발로 묶은 것이다. 우주선 영화에서 우주를 표현하는데 피리를 쓴 까닭은 인간이 처음 만든 악기, 태고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228호) 태조 이성계 어진(국보317호)

경기전 일월오봉도

태조 이성계는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 228호)의 탁본을 받았다. 조선의 개국이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 개국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조선의 새로운 하늘과 새 역법이 천명임을 알고 권근에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을 명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보장하는 매개물로 천명을 이어받는 별자리 28수와 고구려와 조선의 하늘을 기록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태조 4년(1395년)에 제작되었다. 태조 뒤편의 일월오봉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하늘과 같은 의미이다. 고구려 벽화 오회분 4호묘의 해와 달은 조선을 잇는 혁신 코드였다.



고구려 길림성 집안시 1 오회분 4호묘
해에는 삼족오가, 달에는 계수나무가 그려져 있다.



해와 달, 삼족오와 계수나무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1 조선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연주된 생황은 파이프오르간과 연결되는 고리이다. 태조 이성계, 천상열차분야지도, 일월오봉도, 중국에서 생황 연주 기록은 파이프오르간과 이어지는 혁신 고리이다. 우리 민족의 악기 생황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삼국시대 석탑이나 사찰의 벽화로 확인되고 있다. 세종대왕 때 다시 제작되어 화음 악기로 자리매김했다.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에 끼친 위대한 점은 중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글과 음악 소리까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낸 일이다.

우리 민족의 악기인 생황은 중국과 일본 등에 건너갔다. 당나라 때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추측된다. 생황이 영향을 미친 국가는 아시아 전체이다. 열거하면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등 여러 국가가 있다. 라오스의 생황인 켄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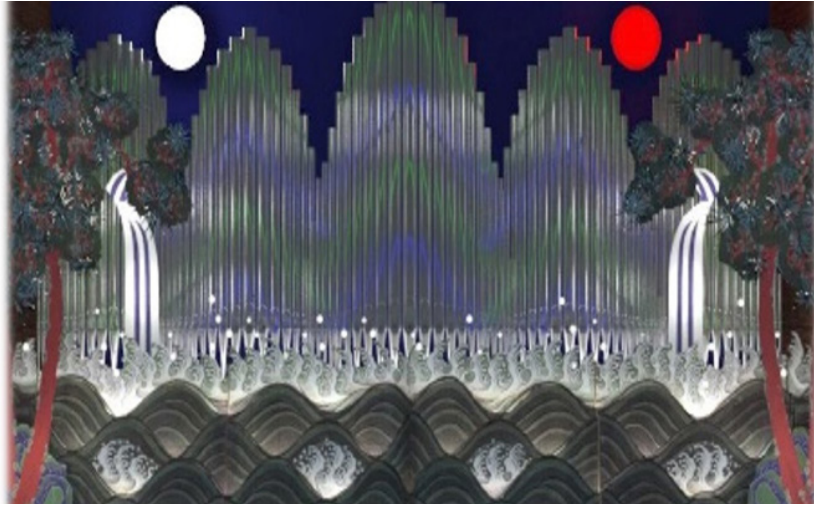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성(Sheng)으로, 일본에서는 쇼로 불리며 대한민국은 17관 생이고 24, 37, 38관 등 개량 생황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 쇼는 15관에 리드를 달았고, 관 두 개가 윤관⁹⁾이다. 중국에서는 21관에서 42관에 이르는 다양한 관수와 규격이 존재한다.

생황이 들어온 역사는 오래되고 기록도 남아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 제작법이 사라지며 생황 연주자와 제작하는 장인도 사라졌다. 조선 시대 실학자 담헌 홍대용이 18세기 청나라 수도 연경(베이징)에 갔을 때 천주교회에서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했다. 담헌 홍대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인물로 거문고와 비파 등 악기를 능숙하게 다뤘다. 그래서 그는 파이프오르간도 잠시 살펴보고는 바로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일월오봉도’¹⁰⁾는 조선을 건국하고 왕좌에 올랐던 태조 이성계의 뒤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과 다섯 봉우리의 산, 흘러내리는 폭포, 두 쌍의 적송, 넘실대는 물결과 땅을 소재로 좌우 대칭의 구도를 갖고 있는 그림이다.

9) 네이버 지식백과: 윤관이란 생황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 협종관, 황종관 사이에 끼어 있다. 김동철, 「파이프오르간으로 마주한 조선의 일월오봉도」, 울산제일일보, 2022.12.14.

양쪽으로 놓인 소나무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 주는 존재로서 천(天), 지(地), 인(人)과 삶에 대한 지혜를 알려 준다. 이는 상극의 대치가 아니라 상생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해와 달, 땅과 함께하는 인간과 천지 만물의 조화는 우주 질서의 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월오봉도에는 조선 500년의 우주관, 생명 사상, 천명사상 등이 오행과 결합한 성리학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이 같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콘텐츠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



IV.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구축-인프라의 산업성

1. 풍부한 인프라 자원

여기에서는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한국적 모습의 파이프오르간 제작 기술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성을 지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제작을 목표로 한다. 편종, 편경 외 아쟁 등 열 개의 소리 스톱, 자동 연주 시스템, 기억 장치 등 파이프오르간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 국악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대풍금이란 표현은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이 명명한 것이다.

기술장치로는 미디 시스템, 기억 장치, 열 개의 스톱. 코펠 장치, Extention 장치, 손 건반, 페달 등이 있다. 동서양 화합의 악기로 창의적 소리를 극대화한 오르간 제작 기술과 이종 기술과의 결합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세종의 음악 정신과 악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가능한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파이프 오르간 제작 기술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다. 이는 새로운 K-culture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오르겔 문화의 도입이 늦어져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93년 전 1931년 처음으로 함경남도 덕원에 세워졌다. 파이프오르간은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다 보니, 서양의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한국의 국악관현악의 소리 영역까지 아울러 웅장하면서도 한국적인 피리의 미세한 소리 부분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파이프오르간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당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음악 홀, 미술관, 아울라(다목적 강당), 새롭게 세워지는 콘서트 홀 등에 설치되어지거나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파이프오르간은 악기 형태를 띠고 있는 건축물에 속하는 조형 예술품이다. 즉 소리 조형물로서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소리 또한 그들 문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 각자의 개성과 예술작품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유럽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홀랜드, 캐나다 등이 오르겔 제작 국가로서 전통 및 기술 등에서 앞서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5만대의 파이프오르간을 보유하고 있다. 파이프오르간은 공동체 활성화의 근간이며, 국가행사와 장례식, 결혼식, 기념행사 연주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성당 파이프오르간은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실제 연주곡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필리핀의 작은 도시 라피나스는 성당에 세워진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으로 인해 문화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라피나스는 해마다 수만명의 음악 애호가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라피나스는 1980년 인구 13만에서 2020년 61만으로 증가하였다.



필리핀 라피나스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스페인 성당 파이프 오르간

국악기 중 생황은 유일한 화음 악기로서 고대 우리 민족의 악기였다. 중국, 일본 등에서는 생과 쇼로 불리고 있으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의 악기도 영향을 받았다. 생황 연주법의 어려움을 극복해 아시아 전체로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악기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라오스의 생황인 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았다.



라오스: 켄은 라오스의 전통 악기로 라오스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악기이다. 이 악기는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구조가 아주 특이한데, 들숨과 날숨으로 소리가 연이어 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하모니카의 구조와 흡사하다.

태국: '라나트'는 태국의 건반 타악기로 대나무 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나트는 17개~22개의 나무판을 태국 배 모양의 곡선을 살려서 만들어진 악기이다. 공명통 위에 걸쳐놓고 2개의 타구봉으로 연주하며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몽골: 2011년 유네스코에 긴급 보호 목록으로 등재되었으며, 림베는 유목민의 관악기 가운데 오래된 악기 중의 하나이다. 대나무나 단단한 목재로 악기를 만들며 몽골인들의 독특한 호흡 방법으로 연주된다. 림베 연주자는 불과 14명밖에 남지 않아 이 무형유산의 연주는 횡수와 규모 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일본: 사쿠하치는 백제 의자왕 때 일본 사신에게 보낸 물건으로, 대나무 악기이다. 일본의 보물 헌납 기록인 <동대사헌물장(東大寺獻物帳)>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이 샤쿠하치(尺八)를 전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기 '로니웃'은 실로폰과 같은 모양으로 목판을 줄에 매달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연주할 때는 양손에 나무로 된 채를 들고 두 개의 목판 건반을 쳐서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쇠로 된 실로폰과 달리 나무가 주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주 좋다.



미얀마: 미얀마의 '사웅'은 16현으로 된 하프로 악기의 현은 각기 다른 두께로 꼬아놓은 생 실크로 돼 있다. 그 음색은 서양의 하프보다 둥글고 부드럽다. 왼손이 음정과 음량을 조절하는 동안,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연주한다. 서양에서 하프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악기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하프계의 악기는 거의 전승되는 것이 없으며 미얀마의 사웅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베트남: 트룽(T'rung)은 대나무로 만든 실로폰으로, 베트남 고산 지방에 살던 소수 민족이 연주하던 악기이다. 트룽은 서로 다른 크기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짧은 대나무는 고음을, 긴 대나무는 저음을 내는데,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대한민국 대표 고급 문화 10선에 파이프오르간 제작을 선정했다. 한국화된 파이프오르간은 서양 음계와 우리 고유 음계를 포함한 글로벌한 새로운 악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

프로젝트의 중심지 전북은 조선 500년을 대표하고,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스토리가 80% 가까이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특화된 관광문화 콘텐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통문화와 새 장르의 기술과의 결합의 결과물인 음악은 사회 통합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K-contents, K-heritage 융합은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국내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는 해외 유학파가 약 3000명 이상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공개해 보급과 현대 음악 등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파이프오르간 레슨 과정도 도입하여 초중고대학생까지 우리 소리, 우리 음악 기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소리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 2024년 9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는 창조적 전통문화상품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면 전통문화산업이 될 것이다. 제13조의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제14조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리문화현장에서 전통의 소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한류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도전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적용이 기대된다. 또한 「국악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 국악의 보존, 계승, 창작 지원, 국악 향유의 문화 활성화,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 각종 지원 시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2. 한국화된 파이프오르간에 국악기소리를 구현하는 기술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한국화로의 가능성이 높은 악기들의 융합악기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현의 계열 소리: 아쟁, 해금

플룻 계열 소리: 피리, 대금, 통소, 훈, 단소

리드 계열 소리: 피리, 생황, 나발, 태평소

타악 계열 소리: 편경, 편종, 징, 북, 소고, 박

음향 계열 소리: 빼꾸기, 종달새, 바람 소리, 비 소리

현의 계열, 플룻 계열, 리드 계열, 타악 계열, 음향 계열 등 10개의 음색(스톱)을 통해 전통적 제작 기법과 현대의 기술 등을 적용, 융합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제작 과정에서 도입하는 기술적 과학적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재를 다각화(대나무, 신소재 등)하여 소리의 색깔을 만듦

새로운 기술적 전기, IT 장치를 이용한 메카니즘(바람통, LED 등) 개발

파이프의 소리 근원이 되는 입술 모양을 변화, 기존 파이프마다 크기

(지름)를 변형시켜 조절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로 자동 연주

주석의 합금의 비율 변형, 전자 소리 융합

(2) 미디 시스템 장착

미디는 악기, 음 높이, 음악 노트 길이 등을 포함, 파일은 작곡, 편곡,

연주 등에 사용

자동 연주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풍금 연주를 기억해 자동

재생하는 자동화 시스템

미디어 파일을 읽어 소리를 생성하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시스템

음악 교육, 제작,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3) 기억 장치

연동 장치, 스톱 장치, 스웰 상자 외에도 기억 장치를 달게 되면 연주자

가 원하는 음색의 조합을 단 한 번의 작동으로 도와주는 장치

즉각적인 음색 변환이 가능

기억 장치를 통해 연주자는 다양한 음색을 선택하고 조합해 오르간 연

주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

4) 스톱(레지스터)은 음색(음원)을 말함

스톱 10개: 10개의 음색을 가진 악기

연주대: 오르겔 전체를 관장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주조정실 역할

파이프를 이용해 국악기의 소리를 재현

*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을 받아 순수 우리말로 사용

(5) 기타 기술 장치

특수 코펠장치: Sub- & Super Koppeln이는 한 건반에서 한 음만 생성되는 것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한 건반으로 여러 음이 동시에 생성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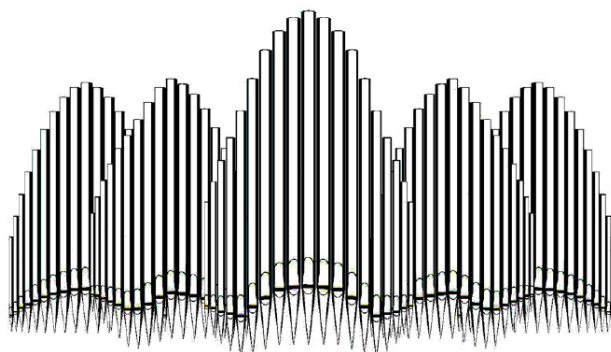
적은 스톱으로도 다양하고도 강력한 소리를 뿜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미션 시스템 장치: 여러 건반에서도 연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또한 컴퓨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통 한 손 건반에서만 사용되도록 한다. 스톱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른 여러 손건반이나 발건반에서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Extention 장치는 파이프의 확장 장치로, 오르간은 손 건반 수만큼만 존재한다. 그것을 확장해 다른 스톱의 파이프를 차용하고 연주자가 원하는 건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또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작동시키도록 하게 된다.

한 스톱은 손 건반의 개수만큼만 존재한다. 오르겔의 특징을 이용해 약간의 파이프를 확장하고 적은 파이프군들로 2~3개의 스톱군을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대표적 스톱은 아쟁, 가온누리 푸르아라 등에 적용된다.

일월월봉도 파이프오르간의 경우 손건반 2개(56개 건반), 페달(30개 건반), 파이프 개수는 2,000개 이상 필요하다.



3.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한국풍의 파이프오르간 제작

조선의 상징물인 일월오봉도를 닮은 한국풍의 파이프오르간은 국가무형유산들과의 협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무형유산과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현대화하고 문화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 면에서는 디자인, 주석, 납, 가죽, 목재, 전기, 전자, 모터, 슬라이드, 반도체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모여 만들어진 종합 예술의 결정체가 파이프오르간이다. 조선 500여 년의 천문 과학, 유교, 불교, 도교, 성리학, 음양오행설, 풍수지리 등을 배경으로 현대 과학기술을 집적한 것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이다.

신과 음악과 문학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유산을 산업화하는 전략이 기본이며, 이를 연결 고리로 서양 음계와 고유 음계를 포함하는 스토리텔링이 무궁한 악기로 변신하는 것이 목표이다. 콘텐츠로 역사적 자부심을 느끼는 고부가가치 소리 조형물로 제작하는 게 핵심이다.

오르겔바우마이스터 홍성훈은 2017년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르겔 제작 기술과 음악으로 독일 정부의 공인 인증을 받은 제작 마이스터다. 그는 디자인, 설계, 대나무와 파이프, 제작, 목재 가공 기술 시스템 등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유학 후 습득한 파이프 오르겔 제작 기술과 국내 장인들과의 협업으로 이동 가능한 투루엔 오르겔을 제작했다.

문화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홍성훈 오르겔바우마이스터를 대한민국 대표 고급문화 10선에 선정했다. 홍성훈은 2023년 5월 15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홍매화 오르겔과 함께하는 여민락 공연을 총감독했다.

파이프오르간의 제작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설계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구상과 컨셉을 스케치를 통해 구체화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설계도를 제작한다.

(2) 자재 주문

대나무는 국가무형유산 한상봉 낙죽장도장을 통하여 대나무 오죽을 파이프오르간에 사용할 수 있게 협업을 한다. 옷칠 전문인 한호규 박사(前 KIST 전통문화 산업단 단장)의 대나무 섬유질로 넓게 편 자재에 대한 협업과 자문을 한다.

주석 파이프는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주석 파이프는 크기, 합금 비율, 두께 등을 계산하여 주문 제작한다. 파이프오르간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금속 재료 가죽, 섬유, 합성 재료, 전기 계통 부속들은 전문 영역의 각 전문가를 통해 주문, 제작한다.

(3) 본체 제작

내구성이나 미적 요소가 중요한 파이프오르간의 외관은 화이트 오크나 단풍나무 등(약 10여가지 자재)은 국가무형유산 55호 소목장 전수조교인 복종선과 협업 후 결정한다.

(4) 내부 제작

파이프오르간 내부에는 모터, 바람통, 건반, 레지스터, 원체스터, 파이프 등의 구성들이 있다. 이 모든 부분을 정밀하게 상호 연결하는 것이 기술적 관건이다.

(5) 디자인

파이프오르간의 개념을 보여 주는 요소다. 대나무, 오죽의 위치와 형태, 외관의 색과 장식, 소재와 재질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파이프오르간이 들어서는 공간에 파이프오르간 자체가 장식적인 요소로서 오케스트라의 중심적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6) 기본 정음

파이프오르간이 완성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파이프에 기본 정음 작업을 거친다. 정음 작업은 정확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모든 파이프의 요소를 일일이 다듬어 제 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7) 해체 작업

파이프오르간은 보통 두 번 지어진다. 제작소에서 한 번, 설치될 곳에서 다시 한 번. 하지만 파이프오르간은 언제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간소화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조립, 분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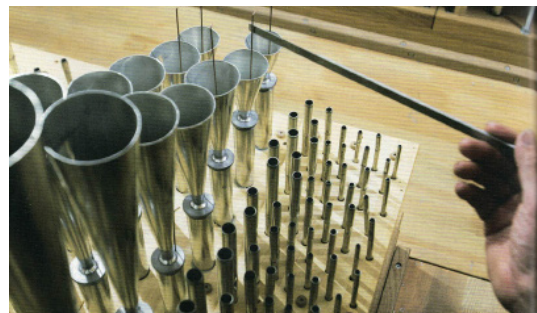
(8) 설치

파이프오르간은 크기와 무게가 일반 피아노보다 가볍게 제작, 두 사람이 들어도 운반 가능하도록 하며 어디에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9) 조율

제작실에서 기본 정음을 끝낸 파이프오르간은 현장의 연주회장에서도 기타 여느 악기처럼 단시간에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파이프오르간의 구조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손 건반(레지스터), 바람 상자, 모터, 원체스터이다.

- 손 건반으로 파이프오르간 연주가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한다. 건반은 기본적인 기능은 같다. 단지 파이프오르간 건반의 특색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다. 건반 구성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보통 3~5 옥타브의 폭을 가지고 있다.
- 파이프오르간에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 상자를 연계 제작한다. 바람상자는 오르겔의 심장이라 표현한다.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능을 갖춘 장치다.
파이프마다 마개를 가지고 있는데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역학적인 방법에 의해 바람 상자 속의 마개가 아래로 열리면, 바람 창고에서 터널을 통해 바람 상자까지 도달한 공기가 열린 마개 사이로 쏠살같이 흘러 들어가 파이프가 서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됨으로써 파이프를 진동시키게 된다. 반대로 건반에서 손을 떼면 바람 상자 속의 마개가 구멍을 막아 바람을 차단시켜 파이프의 소리가 멈추게 되는 것이다.
- 바람 터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음을 낼 수 있는 모터를 장착한다. 바람 터널을 통해 파이프가 서 있는 바람 상자까지 바람을 공급하는 모터이다.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위해 이동 가능하며 경량화한 시제품을 제작한다.



4.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예술구성

(1) 구상배경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한국을 상징하는 예술구성이 중요하다. 태조 이성계와 일월오봉도 이야기 등 역사 현장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과학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과제이다. 일월오봉도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예술품으로, 왕실의 번영과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는 궁중 민화이다.

유럽 파이프오르간의 역사 500년과 우리 조선의 일월오봉도의 역사 500년이 합쳐낸 일월오봉도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은 역사, 철학, 문화가 합쳐진 새로운 모습이다. 유교, 불교, 도교, 성리학, 풍수지리, 오행설을 배경으로 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신과 음악과 문학을 품은 헤리티지스토리텔링의 집합체이다. 국가문화유산의 산업화로 문화적자부심을 일으키는 전략상품임이 분명하다.

(2) 일월오봉도 예술 구성

- 하늘: 전통적 염색을 입힌 천 또는 격자, 일자 모양의 한국적 문양을 사용
- 물결: 한지를 이용하고 배접하여 그 위에 한국채화를 입혀 입체적 표현
- 파도: 한지 또는 옷칠을 이용하고 빛과 파도의 역동성을 표현
- 폭포: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한지, LED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입체적 표현
- 산: 각기의 산은 각각의 소리를 갖게 될 것임
- 해·달: 붉은색, 흰색의 전통 한지, 옷칠을 이용해 빛과 함께 색감 표현
- 소나무: 붉은색의 줄기와 푸른 솔잎은 공예적 기법을 입체적으로 표현
- 병풍 테두리: 목공의 전통 짜맞춤의 방법을 이용하고 단청이나 옷칠, 채상으로 표현
- 연주대: 주조정실의 역할을 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곳
이동 가능, 새로운 디자인으로 독창적인 모습으로 표현

(3)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페스티벌 개최

- 1)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페스티벌(한국 음악 중심)과 마스터 클래스 운영
- 2)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위한 한국 음악, 현대 음악, 작곡, 콩쿠르로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확보
- 3)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페스티벌 가요, K-pop, 국악, 트로트 등 다양하게 편곡, 특화된 음색으로 대중성 확보.
- 4) 국악 앙상블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국악 공연과 편곡을 통해 대중음악축제를 개최

- 5) 첨단기술인 기억 재생 장치 활용으로 관광객을 위한 상설 연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6) 세계 소리축제에 판소리와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월드 뮤직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이프오르간 음악 축제로의 변신 시도
- 7)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으로 듣는 전주 영화제 OST 축제
- 8) 중국, 아시아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K-컬처 수출, 연주 교류

5. WEB 3.0 메타버스 구축 전통문화산업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한국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유한 한국형 파이프오르간으로 제작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K-culture 콘텐츠 제공, 글로벌 무대 진출, 우리의 전통음악의 고유성, 그리고 세종대왕의 음악의 우수성 홍보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책당국은 국가무형문화재와의 협업으로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K-파이프 오르간을 활용해 세종의 음악 여민락 등 국악 장르를 해외로 진출시키며, 콘텐츠를 전 세계로 보급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독일에서 파이프오르간 석사 연주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오르간 연주자들이 3,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파이프오르간을 공개해 파이프오르간 보급과 현대 음악 등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

- 파이프오르간 상설 공연 및 연주자, 작곡자 육성 및 교육 이벤트 등 또 하나의 문화 산업 장르로 구축
- 유럽의 오르간 연주자들에게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연주 기회를 제공
- 파이프오르간의 레슨 과정도 도입해 교육과정에서 우리 소리, 음악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악은 물론 K-pop, K-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대중화 및 세계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모델, K-컬처의 글로벌 모델로 음악을 통한 동서양 융합의 보편적 가치 추구
-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페스티벌, 마스터 클래스
- 파이프오르간 교육 공간과 연주자 일자리 제공
-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위한 한국 음악, 현대음악 작곡 콩쿠르와 한국 음악 페스티벌
- 저작권 및 기술 특허, 전통, 문화, 예술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개최 및 기회 제공
- 세계소리축제, 전주영화제 등 지역 문화 축제와 적극 연계, 문화 상품화
- 상시 운영 및 연주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문화 관광 산업 진입
- 365일 연중무휴로 연주 가능한 파이프오르간 활용안 마련(오토, 원격 시스템 등을 구축)

- 오대양육대주 연결 동시 공연, 세계 한국문화원 대표 프로젝트화
- 파이프오르간 홍보 통합 플랫폼, 파이프오르간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지역무형유산 150명 플랫폼 역할



6. 전통문화발전과 문화관광경제 효과

세종의 악기 소리가 들리는 일월오봉도의 과학적 테크닉을 검증해서 이를 국악과 결합하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K-사운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K-사운드는 음악, 언어,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류 증진, 이벤트를 통해 관광 산업 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K-콘텐츠를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민간 영역의 선도적 개발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개입해 정체성을 정립하는 한편 전통문화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 등 전문 영역, 음악 제작, 안무, 이벤트 관리, 마케팅, 패션, 뷰티 등의 전문 수요가 요구되고, 한국을 알리는 아이콘이며 국가적인 자부심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받은 한국어와 한글 가사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파이프 오르간의 국산화로 총체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을 앞당길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오르간 문화 중심인 유럽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문화 산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주자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연주자들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연주 등 리허설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주 장면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마케팅을 도입, 운영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한국의 소리를 대표하는 세계소리축제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적 정체성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무형유산의 참여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급 학교와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교육산업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서울 중심 관광에서 지방 문화 관광으로 확산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 관광산업에서 힐링 관광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V.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활용-콘텐츠의 창의성

1. 일월오봉도의 신성성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쪽에 놓였던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이다. 서승 전 전주문화원장은 일월오봉도가 탄생하게 된 것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개국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태조가 꿈속에서 나라를 다스릴 신표로서 금척을 받은 후 성수에서 마이산으로 가던 중 마이산을 바라보니 꿈속의 산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성수에서 바라본 마이산은 삼봉이지만 후에 태종이 2개의 탑을 쌓아 오봉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가장 큰 산봉우리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양쪽으로 각각 두개의 작은 봉우리가 협시(挾侍)하는 것처럼 배치돼 있다. 해는 중앙 봉우리의 오른쪽에 위치한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달은 왼쪽의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떠 있다. 폭포 줄기는 양쪽의 작은 봉우리 사이에서 시작하여 한두 차례 꺾이며 아래쪽의 파도치는 물을 향해 떨어진다. 산과 물의 경계선 또는 작은 봉우리 같은 형식화된 물결들의 사이사이, 혹은 그 두 군데 모두에 위로 향한 손가락을 연상케 하는 역시 형식화된 하얀 물거품들이 무수히 그려져 있다.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일월오봉도’는 조선을 건국하고 왕좌에 올랐던 태조 이성계의 뒤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과 다섯 봉우리의 산, 흘러내리는 폭포, 두 쌍의 적송, 넘실대는 물결과 땅을 소재로 좌우 대칭의 구도를 갖고 있는 그림이다. 양쪽으로 놓인 소나무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 주는 존재로서 천(天), 지(地), 인(人)과 삶에 대한 지혜를 알려 준다. 이는 상극의 대치가 아니라 상생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해와 달, 땅과 함께하는 인간과 천지 만물의 조화는 우주 질서의 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월오봉도에는 조선 500년의 우주관, 생명 사상, 천명사상 등이 오행과 결합한 성리학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이 같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콘텐츠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세종대왕의 고유음악 체계화

국악기는 자연을 닮은 소리를 낸다. 자연을 닮은 국악기는 쇠, 돌, 흙, 실, 대나무, 바가지, 가죽, 나무의 8가지 재료를 사용한다. 15세기 악서인 『악학궤범』에 8음에 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8가지 자연 속 재료는 우주에 존재하는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8음이라고 한다.

금부 - 편종, 징

석부 - 편경, 특경

혁부 - 장구, 자구

포부 - 생황

죽부 - 대금

목부 - 박

사부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토부 - 훈, 부

악은 사람의 성정을 기르고 하늘과 땅을 순하게 만들며 신과 인간을 화합하게 해서 음과 양을 고르게 한다고 했다. 조선왕조의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은 음악적 재능도 남달라서 ‘여민락’이라는 곡을 썼으며 박연을 시켜 편경에 쓰일 돌을 구하도록 명했고, 결국 그 소리에 걸맞은 편경을 만들어낸다.

또한, 악기도감을 설치해 많은 아악기의 제작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편경’과 ‘편종’이다. 당시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적인 제사 음악에 중국 음악인 ‘아악’이 사용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세종대왕은 “아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고 중국 음악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 생전에는 향악을 듣고, 죽으면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 된 일이나?”라고 한탄했다. 세종실록 제49권에 실려 있는 말이다.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은 중국에 비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향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바로 편종, 편경 등의 악기를 직접 제작했으며, 우리 정서에 맞는 작곡으로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한 여민락, 취풍형, 치화평 등이 대표적이다. 실학자 담헌 홍대용(1731~1783)과 연암 박지원(1737~1805)은 각각 『을병연행록』과 『열하일기』를 통해 서양악기인 오르겔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홍대용은 중국의 사신으로 건너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중국 북경 성당에 설치되어 있었던 파이프 오르간을 접한 것이다. 그 이후, 박지원 또한 중국에서 그 악기를 보고 난 후 정조에게 “성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들과 똑같은 오르간을 만들겠나이다.”라고 청했다.

3. 파이프오르간, 대표 고급문화 10선에 선정

그로부터 2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손으로 전통의 소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오르겔(파이프오르간) 제작 이야기다.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오르겔은 신의 음성을 대리하는 악기로 알려져 있듯이, 사람의 목소리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경건하고 초월적인 분위기의 선율을 들려준다. 오르겔은 피리들의 군집이며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조형물이다. 이는 여러 부품에 생각과 감정들이 결합해 하나의 생명체로서 피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연주가, 작곡가 등까지 합세해야 새로운 창조물로서 비로소 오르겔이 빛을 볼 수 있다.

2021년 7월,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고급문화 10선에 한국 오르겔(파이프오르간) 제작을 선정했다. 이상만 음악평론가는 “오르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문화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르겔 제작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자생적 산업의 토대와 지식 인프라의 융합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오르겔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오르겔 제작이 하나의 건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인 동시에, 소리조형물인 예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의 산물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홍성훈 마이스터는 1986년 독일로 유학을 가 1987년 목공 마이스터, 1991년 오르겔 바우 국가시험 합격, 1997년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 자격 획득을 이루어내고 귀국해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 제작회사를 설립했다.

4. 일월오봉도의 상징성

임금의 어좌 뒤에 둘러쳐진 병풍 일월오봉도에는 해와 달, 다섯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다. 다섯 산봉우리는 오성을 뜻한다. 해와 달은 임금과 왕비, 오성은 신하다. 특히 일월오봉도에 나타난 해와 달은 고구려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6세기 길림성 고구려 벽화에 해와 달이 들어 있는데 해에는 삼족오가, 달에는 계수나무가 그려져 있다. 해와 달은 음양을 이야기하고, 오성은 오행을 말한다. 동양 천문에서는 이들 일곱 개 천체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 칠정(북두칠성)은 나라의 흥망이나 임금의 안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해와 달, 오성이 일상적인 운행과 다른 이상 현상을 보이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임금이 근신하는 등 국가적으로 관리했다. 하늘의 뜻이 땅에 드리우고 땅의 일이 하늘에 그대로 전해진다는 천인합일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당연히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은 하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칠정을 주시해야 했다. 칠정은 낮과 밤, 계절 등 인간의 시간 질서를 통제할 뿐 아니라 인간의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

대표적인 이상 징후인 일식과 월식, 혜성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일식과 월식은 오래 전부터 기록되어 예보도 가능했다. 천문학자들로부터 보고받게 되는 군주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잡고, 정치적으로는 사면령 등 각종 민심 안정을 위한 시책을 발표하고 여러 중대한 의례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일월오봉도는 다섯 봉인 오악과 소나무 두 그루, 그 아래 언제나 넘실거리는 바다를 표현하였다. 오악은 삼각산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바위산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화자(선승)는 신들이 사는 곳에서 오악을 그리면서 모든 것,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섯 개의 봉우리를 새겼을 것이고, 두 그루의 소나무는 인간 세상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며, 그 자체로 지상에 뿌리를 박고 사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소나무는 일찍이 백목의 장으로 황제의 궁전을 수호하는 나무였다. 소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로 송수천년 · 송백불로라고 하였다. 또한,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여겨 왔고, 소나무는 깨끗하고 귀한 나무로서 하늘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높이 솟은 소나무 줄기를 택한다고 믿었다.

두 소나무 아래에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영구히 존재한다는 장수의 상징인 물결이 치고 있다. 물은 바위, 소나무와 함께 십장생의 상징물이다. 종교에서 물은 성스러움, 순결, 깨끗함, 거듭남 등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향수와 감로수로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면서 성불을 발원하고 몸을 씻은 물은 길상수라 하여 성스럽게 받든다.

5. 세계적 소리축제로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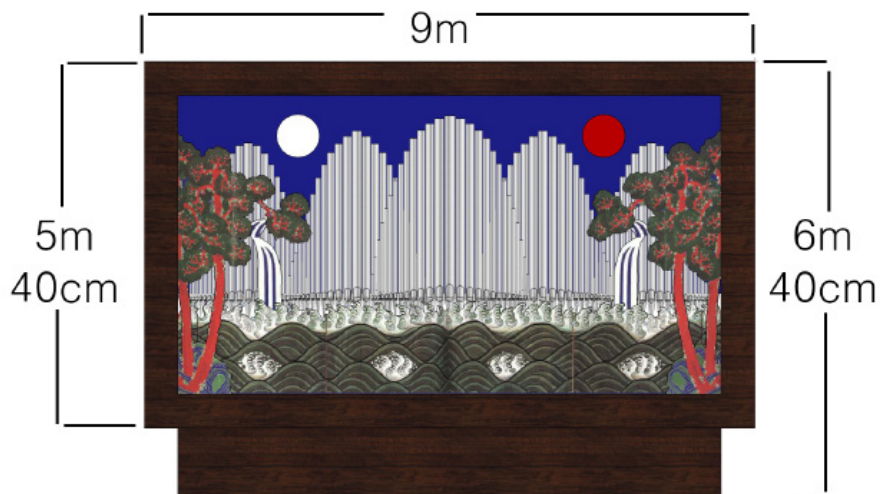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탄생은 한국문화의 정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소리축제의 주요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며 세계소리축제를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르겔 제작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나 손재주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 다양한 재료, 디자인, 예술가, 철, 가죽, 목재, 목공 기술, 메카닉적 이해, 전기, 전자, 모터, 솔레노이드 등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들이 하나로 모여야 탄생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오르겔은 편종, 편경 등 10여 가지의 한국적 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융합 방식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나 북미의 문화인 오르겔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조선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뛰어난 예술적 작품인 ‘일월오봉도’와 실학자 홍대용이 이름을 붙인 ‘대풍금’에 현대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

소리는 그 나라의 언어와 풍경을 담아간다. 수백 년의 전통을 지켜오며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유럽의 오르겔이 우리의 소리를 담은 오르겔로 변신한다면, 오르겔은 우리의 ‘혼’을 담은 악기이자 한국화된 악기로 우리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 오르겔 제작자인 홍성훈의 손을 통해 일월오봉도 오르겔을 제작해, 서양 음계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음도 함께 구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화된 파이프오르간은 조선의 일월오봉도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김동철 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2016년도 ‘파이프오르간 국악이 되다’라는 주제하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국악과 파이프오르간을 결합한 연주 여민락 공연을 진행했다. 파이프오르간의 제작으로 전통 악기인 생황의 가치와 우리 음악의 정체성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될 파이프오르간의 적용 범위는 국악과 오케스트라를 연결하는 화음 악기로 K-heritage 및 K-pop의 재해석의 용도로써 빛을 받을 것이다 전통문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설계도(가상)

VI.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발전 방안

1. 파이프오르간 글로벌 축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문화중심지로 전주, 전북을 지향해야 한다. “전주에 가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통문화산업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결국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세계소리축제가 이룩한 터전 위에 창조적 변용을 통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이라는 새로운 악기, 장르를 도입하는 퀀텀점프가 요구된다. 앞서 약속한 바 있지만 발전 방안을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대전제: 파이프오르간 글로벌 축제

콘텐츠: 파이프오르간 K-pop 페스티벌

파이프오르간 대중음악 페스티벌

파이프오르간 국악 페스티벌

파이프오르간 창작, 작곡, 편곡 경연

파이프오르간 성가 페스티벌

전북특별자치도는 관 주도로 세계소리축제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소리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예술적 수준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런 가운데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이라는 전통과 현대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악기가 등장하는 것은 세계소리축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부와 전북은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세계소리축제에 새로운 전통악기로 수용하는 동시에 연주를 새로운 장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태조 이성계 일화를 비롯해 조선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의 고향으로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크게 선양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소리축제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소리의 세계화라는 의미를 잘 새기고 창조적으로 담대하게 축제를 혁신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세계소리축제에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콘텐츠를 포함할 경우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와 협연 또는 독주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세계소리축제가 생물실의 박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거듭나는 데 적합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고유한 정신사상인 풍류의 현묘지도를 실천하는 일이며, K-pop을 위시한 K-culture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세계 음악을 주름잡고 있는 독일의 음악적 전통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적 영성(Spirit)에 한국적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연주가 결합한다면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와 교류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세계소리축제가 지역축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축제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소리축제에 가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신드롬을 형성해가기를 바란다.

2. 체험프로그램과 관광명소화

인프라 측면에서는 일월오봉도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며, 소리문화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하는 그 자체로도 시선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창조적 소리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 서양음계와 우리 소리음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로 제작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이 기대된다.

전 세계인이면 전주에 와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신성한 디자인과 영성이 넘쳐나는 음악을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직접 찾아와서 체험하며 휴양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대전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명소화

콘텐츠: 파이프오르간과 체험음악회

외국인 연주자 체험 프로그램

국내 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오르간 연주자 3,000여명)

파이프오르간 관광명소화

POSTECH 인공지능대학원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국악원이 갖고 있는 음원과 POSTECH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AI 작곡을 시도할 수 있다. AI작곡은 표준적인 그러나 보편적인 창조적 일월오봉도 파이프 오르간 곡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파이프오르간으로 듣는 가곡, 트로트, 대중음악, K-pop 등 대중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함으로써 소리문화 중심지로서 전북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이다. 여기서 전북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긍심을 영상에 노출시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수적으로는 기술 특허 및 IP 저작권 확보 등도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와 협력 진행, 일월오봉도 전문 아트샵(악보, 도자기, 그림 등 디자인 그룹 다각화) 설치도 필요하다.

3.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연주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국악기 소리를 구현하는 일이다. 더욱이 조선의 상징인 일월오봉도를 디자인하고 조형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개성을 살리는 것으로 외국인들도 이에 만족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적 소리와 글로벌 소리의 하모니로 우리 소리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세계소리축제가 우리 소리의 세계화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등장으로 더욱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내 연주자 3,000여명에게 연주기회를 제공하며 창작과 교육의 공간도 넓혀줄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대전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콘텐츠: 파이프오르간 마스터 클래스

영재교육 프로그램

음악교육기관 활용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파이프오르간 제작·전수·세미나

게다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메타버스를 구축하면 전북의 국가 유산을 소개하는 매체가 늘어나게 된다.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활용해 전북 문화유산의 사계 및 역사 등을 영상으로 편집 제작한다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작품성은 더욱 더 빛이 날 것이다.

4. 파이프오르간의 통합플랫폼 구축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연주가 흐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북자치도 국가유산, 전주 국가유산 30인, 국가유산 10인 등 글로벌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대전제: 파이프오르간의 통합플랫폼 구축

콘텐츠: 파이프오르간 연주 대륙연결 실시간 중계

국제 연주자 콜라보 연주회

국내, 국제 문화이벤트 기획

온라인교육, 경연 공간 제공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저작권 보호

대전제: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저작권 보호

콘텐츠: 여민락, 수제천 국내외 공연

콘텐츠 활용

드라마 제작

미디어 파사드 연동 공연

저작권 확보 및 보호

어렵게 찾아낸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단순히 구상이나 제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 전통문화의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게 현장에서 접근하며 전문가들과 협력한다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발굴과 개발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I. 결론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 즐기고 있는 한류, 노래와 춤은 고대국가 시대 고구려 선인들이 하던 노래와 춤의 계승이 아닐까? 6세기 말 중국 북주의 시인 왕포(王褒)는 ‘고구려곡(高句麗曲)’이라는 시를 지어 “기울인 잔에서 술이 줄줄 흐르고 늘어뜨린 팔소매 하느적거리는구나!”라고 노래했다. 8세기 당 나라 시인 이백은 “넓은 소매 저으며 뿔뿔 춤을 추니, 마치 요동에서 날아온 매처럼 나래를 펼치는 듯.”하다고 칭송했다. 고구려 당시 한류는 중국 귀족층을 사로잡았다. 귀족들은 고구려 가무를 해야 행세를 했을 정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한류는 결국 문화의 수준이요 국력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인이 밤새도록 음주가무를 했던 것은 공동체 구성원끼리 단합하고 낮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낮 동안 고구려인은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을 쌓고 생산에 종사한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교육열이 강하고 문화수준이 중국에 비교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기에 한류가 600여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고구려시대의 한류를 돌이켜 보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의 교육과 문화수준이 낮고 못산다면 누가 따라서 우리의 노래와 춤을 하겠는가? 우리는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통해 제2의 한류를 일으키기를 염원한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소리를 대표하고 영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류보편의 음악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농악을 들을 때 저 가슴 깊이 우러나는 신명을 느끼는 그런 음악을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이 내는 소리는 최치원이 갈파한 것처럼 현묘지도(玄妙之道)의 풍류이다. 우리 민족이 이어오고 있는 현묘한 도는 그 당시 신라 사회에서 신봉되고 있는 유교, 불교, 선교의 가르침을 이미 내포한 것이다. 우리의 현묘지도는 유불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유불선 이전부터 내려온 신묘한 도이다. 현묘지도가 예술로 표현되는 게 풍류이다. 풍류는 현묘지도의 몸체를 드러내는 신명나는 노래와 춤이다. 그러니 그 춤과 노래를 신을 찬미하고 율동이 씩씩하다. 금파춤보존회 김애미 이사장은 그러한 춤을 연출하고 있다. 그가 북경에서 공부를 하고 최승희류의 춤을 재현하려고 하는 데서 고구려춤, 백제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류의 연원과 그 한류를 전통문화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 전략들을 찾고자 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지금 당장 정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연구자와 예술인, 특히 홍성훈 마이스터 같은 전문가들의 도전이 있기에 올바른 전략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부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그에 맞춰 해법을 모색하려고 했다. 학문적으로는 일월 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의 콘텐츠 활용전략이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인프라가 구축돼야 콘텐츠 프로젝트도 이어갈 수 있기에 인프라 구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됐다.

파이프오르간은 그 원형인 생황의 길고 긴 운명처럼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오가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연원을 추적하는 것 또한 사학자들의 연구와 홍성훈 마이스터의 제작 현장 등에서의 연구가 뒷받침되었다. 문헌사적인 근거를 찾기는 했지만 제작 현장에서의 구전, 소리의 본질 등을 규명하는 게 더욱 더 과학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파이프오르간은 전통악기로 거듭나는 중이다. 더욱이 일월오봉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전통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월오봉도는 만방에 대한민국의 자주국임과 문화강국임을 선양할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은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작 과정에서 많은 무형문화재를 활용하고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콘텐츠 창작과 연주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통악기의 복귀! 그 자체로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예고하는 것 같다. 본문 여러 곳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경제 진흥 등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 제2의 한류를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면에서도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통악기의 부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 강력한 고구려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고구려정신은 가무로 단련한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고구려정신은 나라가 어려운 요즘 시국에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문화부가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도 단순히 어느 장르를 살리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에 녹아 있는 국가정신, 공동체정신을 되살려내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새기며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을 통해 국가정신을 확립하며 실천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소리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다. 전통소리문화를 통해 세계소리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문화부의 대망이 곧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일월오봉도를 통해 백성이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 이뤄지기를 염원한 태조 이성계의 꿈이 파이프오르간의 선율을 따라 이 세상 모든 강산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

저자

김동철 現 (주) 온고 대표이사
前 한국전통문화전당 초대원장, 前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부국장

- 기고 및 기획 -

풍패지관과 일월오봉도 이야기

일월오봉도, 파이프오르간과 마주하다

동아 국악 콩쿠르, 동아 음악 콩쿠르 총괄 책임

<구스타프 클림트> 예술의 전당 전시 기획

자문위원

송재복 전북미래연구원장, 흥 문화예술기획 대표이사
前 호원대학교 교수

홍성훈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 국내 유일 독일 공인 마이스터(장인)

이춘구 호남문화콘텐츠 연구원 이사
前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 교수, 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이광재 WEB 3.0(메타버스, NFT) 전문가, 리본소프트 CTO
前 우석대학교 교수

조준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융합 박사 과정
영국왕립예술학교 디자인 전공, 위스콘신 주립대학

정재훈 포스텍 AI 대학원 교수

한호규 前 KIST 전통문화 산업단 단장



발행 기관: (주)온고

총괄: 김동철

편집: 김다빈

발행일: 2025년 7월

